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8, No. 4, 2016. 11, pp. 25-5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이 현 주
(충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근무경험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C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1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심층면담하고,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113개의 개념, 28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 '존재의 부활'이었고, 핵심 범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기회와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기'이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근무경험은 편승형, 자기확장형, 동반성장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취업과 관련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 근무경험, 근거이론, 존재의 부활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이주는 2000년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정점을 이룬 후 현재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국내 총 결혼의 7.6%가 국제결혼이고 그중 69.3%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결혼이주여성들은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과 사회생활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저하, 소외감과 박탈감은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자녀양육,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8046954)

되기도 했으나(김안나·최승아, 2013; 김이선·이아름, 2014; 이해응, 2014; 김효순, 2016; Jones, 2012), 이들의 상당수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한국사회 새로운 시민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 통합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황정미 외 2009; 김이선·이아름,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사회통합의 제반 측면에서 일종의 자원으로서 심리적 건강과 일상생활, 취업 등을 위한 정서적, 실질적 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김이선·이아름, 2014: 26).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지원이다. 결혼이주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높은 비율이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역시 모국의 가족을 위해 결혼이주를 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박미숙 외, 2014: 270; 조성호·변수정, 2015: 60).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공수연·양성은, 2014: 148).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취업이란 단순한 생계수단의 의미를 넘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긍정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지원의 욕구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박능후·선남이, 2010; 배경희·서연숙, 2011; Gilbertson, 1995; Piper, 2003)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결혼생활과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만족스런 취업 경험은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근로활동은 이들의 사회적응을 높여주고 이러한 적응력은 우울과 소외감,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하게 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사용능력 증진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응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경희·서연숙, 2011).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9.5%로 2013년 53%와 2009년 3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과 단순 노무직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향후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설동훈·윤홍식, 2008; 김복태·이승현, 2015),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와 저숙련, 저임금 직종으로의 집중은 이들이 기혼여성으로 자녀양육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직무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윤홍식, 2008; 양인숙 외, 2010; 강혜정·이규용, 2012; 이은희·이은미, 2012; 이태정 외, 2013; 김복태·이승현, 2015; 김현숙, 2015).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며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기반의 역할을 할 것이며(양인숙 외, 2010: 3),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적응해 나가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도화 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되어온 실업,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빈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순, 2016: 44).

2014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근로자수는 379명으로 201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a). 이렇듯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근무경험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기업 참여 경험의 내용, 자기 삶의 재구성 과정과 같은 구조를 파악하여 실체이론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차원에서 논의를 확장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실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구성요인과 관련된 연구(김효순, 2016)와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연구(최인이, 2016)가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사회적기업 근무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아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동태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며, 그 중에서도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자료를 해석하고 경험화 하여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활용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수립과 실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문헌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부족한 노동력 충원과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한 준비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남편은 경제적으로 중하위층이 많아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자립과 가정의 경제적 보탬을 위한 다양한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숙 외, 2014: 273; 조성호·변수정, 2015: 6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본국으로의 송금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모국으로의 송금에 대한 논란과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고향의 가족에게의 송금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하나의 성취로서, 그들의 자의식에 기여한다(이재원·홍찬숙 역, 2012: 172). 또한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사회와의 접촉이 증가되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박미은 외, 2012: 218).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2015년 기준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6),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향후 취업의사는 84.1%로 나타나(김복태·이승현, 2015) 취업률에 비해 높은 취업욕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직종은 단순노무직(29.0%), 서비스직(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35%), 상용근로자(29.9%), 일용근로자(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상의 전체 취업자 직종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국민 전체 취업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를 통해 취업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단순노동을 하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적이고 지속되며 고숙련의 질높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을 정책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인정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취업 등의 경제적 행위가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최인이, 2016: 10). 박능후와 선남이(2010)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이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며, 정규직 종사자가 임시직이나, 자영업자, 무직, 전업주부 등과 비교하여 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과 교육수준 이외에 이주여성 개인들의 문화적 차별 경험과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문화 태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은 외(2012)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취업경험을 심층면접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취업결심, 취업과정, 그리고 취업이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지만 결국 일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의지가 있음이 나타났다. 김이선과 이아름(2014)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학력수준도 높지 않고, 한국어 수준도 완벽하지 않을뿐더러 자녀양육 책임도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있는 상황이기에 실제 일을 찾기는 어려우며, 찾더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정기적으로 부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남편의 장사를 돕는 등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몇몇 일자리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연과 양성은(2014)은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을 통해 다소 제한적이나 자신들의 사회망 안에서 취업전략을 세웠고, 외국인이란 현실에 대한 무력감, 한국의 고용불안정, 낮은 다문화수용도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취업동기는 좋은 엄마로서의 역할모델과 인정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이 긍정적 다문화사

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일자리 확충, 다양한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완전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동기와 취업 시 어려움을 탐색하여 이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지원을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국가이주적 요인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박미숙 외(2014)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취업동기와 다르게 취업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기업과 결혼이주여성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실업률과 양극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육 및 간병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증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이현주, 2016: 171).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목적을 '경제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b: 8). 사회적기업은 영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취약계층의 단기·저임금 재정지원 일자리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b: 10).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눠지며, 그 중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이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취약계층의 범위로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자녀,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업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학계의 관심과 함께 증가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전에는 해외 사회적기업의 소개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이해를 돕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많은 수의 연구가 제도적 육성전략 및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후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나 성공요인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조상미 외, 2013; 최영출, 2013; 김미화·이용재, 2015; 김학실, 2015; 이현주, 2015, 2016).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기에,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하여 보람되고 좋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중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연구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참여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노동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구성요인을 발견한 김효순(2016)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기업 노동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이 확인되었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요인 분석결과를 통해 15개의 하위 구성요인이 정리되었다.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적응단계에서 사회적기업 참여를 통해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고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인이(2016)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차별적 구조에 대해 인지하게 되며 경제적 활동을 가용한 행위전략으로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의 정체성은 변화되어 한국사회 및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연구 모두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사회적기업의 노동경험을 통한 역량강화(김효순, 2016)와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 재구성(최인이, 2016)을 드러내는 데는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로서 갖는 경험의 내용과 과정보다는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관심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있으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여 추상의 구체화와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을 근거이론 연구접근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을 분석하고자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이동성·김영천, 2012: 1), 자료의 수집과 취합, 해석을 통해 발견한 개념을 추상화함으로써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방법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근거이론은 삶과 행동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현상과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경험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유기웅 외, 2012: 24),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개방코딩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적기업에 입사하기 전의 경험과 입사후의 구체적 경험내용을 개념으로 구성하는 한편 하위범주를 구성하여 개별적이면서도 공통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둘째,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에서 구성한 범주를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기업에서의 경험구조를 제시하는 한편 변화고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셋째, 선택코딩에서는 이야기윤곽을 기술했고 이에 근거하여 핵심범주를 구성하였다. 유형분석에서는 핵심범주와 중재적조건, 작용/상호작용을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기업 참여 유형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상황모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차원을 나누고 상호작용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은 (1) 인구사회학적 질문, (2)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경험은 어떠한가?(취업경로와 방법, 구직 준비기간, 본인의 기대와 현재 하는 일의 일치도·만족도, 직장 내 본인의 위치나 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현재 직장생활과 이전 직장과 다른 점 등), (3)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나타난 긍정적, 부정적 변화는 어떤 것인가? (취업 전과 후 배우자,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본인의 성격이나 행동에서의 변화 등), (4)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2) 연구 참여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1)]

참여자	출신국	연령	최종 학력	결혼 기간	자녀	사회적기업 근무기간
1	베트남	27세	중졸	8년	1명 (초1)	4년
2	캄보디아	31세	초졸	8년	1명 (7세)	2년
3	캄보디아	34세	중졸	10년	1명 (초1)	2년
4	필리핀	27세	전문대졸	6년	3명 (중1, 6세, 5세)	1년3개월
5	필리핀	28세	고졸	7년	2명 (6세, 5세)	2년
6	중국	36세	고졸	11년	2명 (초4, 초2)	1년2개월
7	베트남	34세	고졸	10년	2명 (초3, 4세)	4년
8	베트남	32세	중졸	11년	2명 (초3, 초1)	3년6개월
9	베트남	24세	초졸	5년	2명 (초4, 3세)	1년2개월
10	러시아	43세	전문대졸	11년	2명 (고1, 초4)	2년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자는 C도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센터와 C시의 사회적기업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중 결혼이주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4곳을 소개받고 해당 기업의 대표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그 중 3곳의 대표로부터 근로자와의 면담

1) 배우자 직업: 건설 노동자(참여자 1, 2, 8), 제조업 생산직(참여자 3, 4, 6, 9), 배달원(참여자 5), 회사원(참여자 10), 무직(참여자 7)

허락을 받았고, 대표에게 질문지를 메일로 송부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근무 1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중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인들에게 질문지를 미리 검토하게 한 후 연구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모두 10명이며, 출신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러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과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심층면담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가 소속 기업의 대표로부터 연구목적에 대해 안내를 받고 면담 질문지를 사전 검토 후 면담을 수락한 상태에서, 기업의 대표나 팀장을 통해 면담 약속을 잡고 연구자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1~3회에 걸쳐 시행되었고, 평균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 시작 전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연구 윤리 등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에 연구 참여자의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근거이론 연구 접근의 원칙인 포화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나 예상범주, 분석의 단서가 출현하지 않을 때까지 면담과 분석을 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를 인지한 것은 8번째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서였다. 그러나 포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명까지 자료 수집을 시도하였고 자료 분석에는 모든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이 사용되었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자료의 기술, 해석, 이론화 과정에서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연구자시각에서 자료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선이해를 미리 제시하고 동료연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연구자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다수의 연구 수행 경험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연구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1인과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자료의 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당성 위협을 줄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였고, 전사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였다. 최종 전사내용은 기록으로 보관하였고, 연구현장에서 기록한 메모도 모두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더불어 면담 시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소통이 잘 안될 경우 재질문이나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받았다. 셋째, 면담이 기업의 관리자를 통해 성사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찰자 효과를 배제하고 연구 참여자

가 안전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실이나 이용자가 없는 구내식당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면담내용의 학문적 활용과 면담 시 녹음기 사용,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수집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자발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답변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4. 분석결과

1) 개방코딩

원자료를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가지고, 의미상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원자료에서 113개의 개념을 발견한 후 이를 28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1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그 내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기업 근무 경험에 대한 개념, 하위범주, 범주 목록

개념	하위범주	범주
외국인은 한국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무직 쪽에서는 받아주지 않음, 식당·포장공장 등에서 일했지만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만족할 수 없었음, 노동부에서는 외국인은 사무 분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예단하고 소개조차 시켜주지 않음	낮은 일자리	이주민 구직 한계
구인광고를 보고 여러 곳에 전화하고 면접에 갔으나 기회를 잡지 못함, 여성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 후 1년 6개월여 만에 여성인턴으로 취업기회를 갖게 됨, 출산 후 여러 직장에 지원했으나 모두 거절당함, 면접 시 서툰 한국어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아이가 있는 외국출신 여성을 받아주는 곳이 없음	높은 취업의 문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프로그램 참여가 계기가 되어 입사,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 하던 중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소개받음, 다문화센터 한국어 선생님이 힘써주심, 사회적기업에 기 취업한 결혼이주여성 소개로 입사	연결고리	취약 계층의 기회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낌, 한국인도 일자리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것에 감사함,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거리를 만든다는 사실이 기적으로 느껴짐	복지체감	
결혼이주여성이기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함, 미싱기술자를 뽑을 수도 있었지만 초보자를 뽑아 기술을 가르쳐 줌	새로운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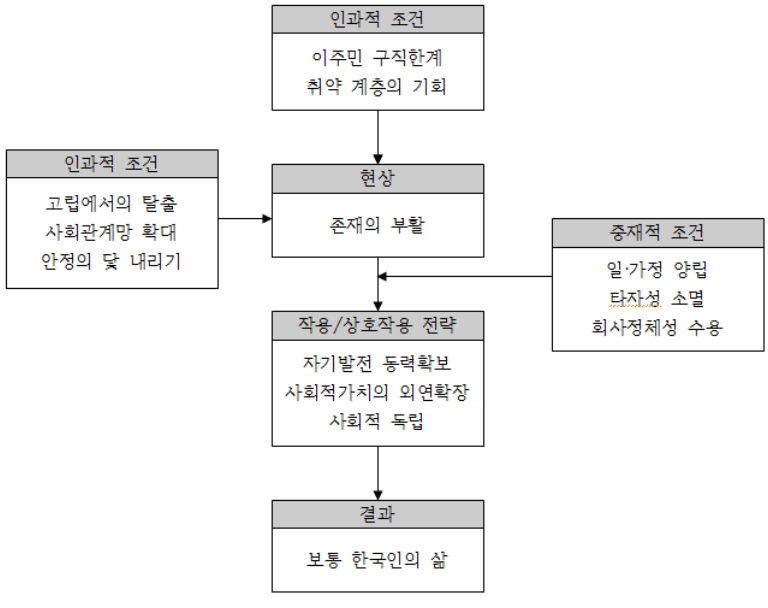
개념	하위범주	범주
남편은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기업에 다니는 것을 좋아함, 직장에 다닌 후 시어머니가 친절하게 대해 줌, 직장에 나가는 것을 꺼리던 시댁식구들도 긍정적 시각으로 바뀜, 일을 시작한 후 남편이 가사를 도와 줌, 본국의 가족들도 지지해 줌, 일하겠다는 자신을 무시하던 남편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자 새롭게 봄	가족의 인정	존재의 부활
바리스타인 엄마를 친구들에게 자랑 함, 자녀들이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함,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에서 면담 한 엄마를 보고 자녀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게 됨	자랑스러운 어머니	
공장에 다니는 모국출신 친구들이 부러워 함, 이주여성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지금 나의 직장에 자리가 나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해옴	선망의 대상	
고향을 떠난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낌, 같은 길을 간다는 의식이 강해 직장 동료들간에 서로 도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친구가 있다는 희망으로 바뀜, 환경과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상황에 있기에 관계가 돈독해짐	동류의식 연대	고립에서의 탈출
돈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여유가 생김,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됨	마음의 여유	
사회적기업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귐, 내성적인 남편보다는 직장 상사인 대리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음 좋은 직장동료를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함, 아이들로 인해 항상 걱정과 스트레스에 휩싸여 지냈지만 친구들이 생기자 든든해짐, 비상상황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동료들이 모두 합심하여 도와줌, 모국 친구들은 힘든 결혼생활을 보고 도망가라고 하지만 직장 친구들은 의지가 되고 격려해 줌 한국 사람이 많은 공장에서는 어색하고 불편했으나 결혼이주여성 친구가 있는 사업장은 편함, 다문화센터 다음으로 가장 믿음이 가고 든든한 곳, 회사대표가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큰 도움을 줌, 처음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겨나감	든든한 후원자	사회 관계망 확대
직장동료들과 자매처럼 친하게 지냄, 직장동료들에게 가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며 응원을 받음, 도와 줄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직장 동료들이 도와 줌, 직원들간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회사 분위기로 인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짐	새로운 가족	
사회적기업 운영 정보가 공개되고 교육을 받음, 다문화센터에서 배우지 못한 구체적 사회관계 기술을 배움, 동료들과 친숙히 지내면서 한국의 문화와 실정을 알게 됨, 부족한 한국어를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함, 직장동료들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	사회교육의 장	안정의 닻 내리기
돈을 벌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는 것이 뿌듯함, 아이들에게 한우고기를 사줄 정도로 여유가 생김, 모국의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됨,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됨, 소액이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움	경제수준 향상	
개인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기에 이직할 생각을 하지 않음, 배려와 기회를 준 직장에 항상 감사하고 노력하고자 함,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고마움, 체력이 약해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음, 중도입국한 아들 문제로 본국에 가야말 할 때 회사에서 기다려 줌	개인사정 배려	일·가정 양립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일할 수 있음, 학교 끝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일·양육 병행	

개념	하위범주	범주
서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갈 수 있어 좋음,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일이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시간에 맞춰주기에 양육하기가 수월함		
한국어가 서툴어도 이해해주는 친구들로 인해 자신감이 생김, 미숙한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격려해 줌, 실수를 해도 질책하기 보다는 마음을 써주는 관리자들이 고마움, 이전 직장에서는 한국어가 서툴러 힘들었으나 지금은 서로서로 이해하려는 분위기	관용적 분위기	타자성 소멸
한국인과 급여차별이 없는 사회적기업에 만족함, 한국 사람들에게 지녔던 편견과 피해본다는 생각에서 벗어남, 과거 직장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이 나이와 출신지를 묻고 압박했으나 현재 직장을 그렇지 않음	사라진 차별	
회사의 수지타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애착이 생김, 시간만 때우고 월급을 받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는 일을 즐기게 됨, 월급은 적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 이직하고 싶지 않음, 다른 직장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함	애사심	회사 정체성 수용
배려해주는 회사분위기가 좋아 친구에게도 권유함, 모국 지인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음, 자신의 가족들도 초대하여 일하게 하고 싶음, 한국의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모국 가족에게 이야기 하고 자랑함, 아는 친구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음, 가족 같은 회사이기에 일하고 싶어 하는 모국출신 이주여성들이 줄 서 있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기에 모국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음	사회적기업 홍보자	
대표의 배려와 지원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함, 사회적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냄, 매니저로 승진함, 대표의 지원으로 외부 교육기관에서 미싱과 일러스트 교육을 받음	상승 사다리	자기발전 동력확보
평생교육원 영어강사과정을 이수하여 영어강사가 되는 것이 꿈, 바리스타 1급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 중,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하겠다는 꿈을 가짐, 일하며 배운 미싱기술로 후에 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함	새로운 꿈꾸기	
다른 제조업체와 달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회사에서 일하여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도울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음, 현재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렵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움, 회사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방향을 인지함, 단조로운 작업이지만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재미있음, 같은 처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낌, 자신들이 일한 결과가 남을 돕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 후 자랑스러워짐	사회적기업의 가치인식	사회적 가치의 외연 확장
도움만 일방적으로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함, 도움을 받았으니 자신도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함, 자신에게 힘이 생긴 후 한국에서 이혼위기에 있는 모국친구를 도와줌,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함	사회에 되갚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낙오되었다는 패배감에서 벗어나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김, 집에 있을 때는 자신에 대해 회의가 들었으나 일하면서 자신감이 생김	유능감 생성	사회적 독립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헤쳐나감, 어떤 일이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막연하고 두려웠던 한국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됨, 무슨 일이 생겨도 극복하고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극복 자신감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며 지금 이대로를 누리고 싶음, 높은 급여를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 시간이 없기에 부럽지 않음, 월급	현재에 만족	보통 한국인

개념	하위범주	범주
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 부럽지만 사람으로 대해주는 현재 직장이 좋음		
주말에 같은 나라 출신끼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교류함, 다른 공장 근무자들과는 달리 주말을 즐길 수 있음,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다른 직장보다 휴일을 가질 수 있어 좋음, 잔업이 드물고 주말에 쉴 수 있음, 주 5일 근무가 보장 됨	주말이 있는 삶	의 삶

2) 축코딩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13개의 범주를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그림 1〉 과같이 배열하였다.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전개를 촉발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and Corbin, 1998).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존재의 부활'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이주민 구직한계'와 '취약계층의 기회'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이주 후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국인이 갖는 미숙한 한국어의 문제와 돌봐야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나마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학력이나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낮은 일자리가 전부였다. 가까스로 노동

부 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알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한국인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준 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한 취약계층이기에 이들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기업 취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복지를 체감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된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존재의 부활'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안정의 닻 내리기', '고립탈출', '사회관계망 확대'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향을 떠나 한국이라는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힘들었으나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는 타지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로서 지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회사 대표를 포함한 동료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처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통해 한국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작지만 수입이 생기게 되면서 안정된 한국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연결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중심현상으로 '존재의 부활'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초기에 연구 참여자의 취업에 대해 별로 반기지 않았으나 취업 후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연구 참여자를 인정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 취업 중인 모국 친구들이나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주여성들이 연구 참여자가 일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연구 참여자들을 부러워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결혼이주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가치를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다시 찾게 되었다. 이 같은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인 '존재의 부활'에 대하여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일·가정 양립', '타자성 소멸', '회사정체성 수용'의 범주가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는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일과 가정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이라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현 직장에서 타자성의 소멸을 경험하게 되었다. 현재의 회사 생활에 만족하게 되면서 지인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적극 권유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수용하게 되었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현상에 취해지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기발전 동력확보', '사회적가치의 외연확장', '사회적 독립'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게 되면서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하였고, 승진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사회적가치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사회적기업 근무 후 생성된 유능감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이들의 사회적 독립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면서 당면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최종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보통 한국인의 삶'이 결과 범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급여를 많이 받으나 자기시간이 없고 인격체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삶보다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며, 주말에 쉴 수 있어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주말이 있는 평범한 보통 한국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표 3〉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이주민 구직한계	강도	강함 - 약함
	취약계층의 기회	빈도	많음 - 적음
맥락적 조건	고립에서의 탈출	범위	전부 - 일부
	사회관계망 확대	기간	지속적 - 일시적
	안정의 닻 내리기	깊이	깊음 - 얕음
중심현상	존재의 부활	범위	전부 - 일부
중재적 조건	일·가정 양립	기간	지속적 - 일시적
	타자성 소멸	강도	강함 - 약함
	회사정체성 수용	기간	지속적 - 일시적
작용/상호작용 전략	자기발전 동력확보	존재	있음 - 없음
	사회적가치의 외연확장	범위	넓음 - 좁음
	사회적 독립	기간	지속 - 일시
결과	보통 한국인의 삶	유지	연속 - 단절

3)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과정분석은 단계와 활동범위를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존재의 부활이라는 중심현상이 발현된 이후부터 '비전수립단계', '책임 있는 사회성원으로 거듭나기 단계', '독자적 자기위치 굳히기 단계', '영속적인 제자리 확보 단계'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취업을 통해 낯선 타국으로의 결혼이주 후 잃어버렸던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존재의 부활 후 연구 참여자들은 대표의 배려와 지원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혔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조직에서 매니저로의 승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비전수립단계'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책임 있는 사회성원으로 거듭나기 단계'에 진입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회사의 교육을 통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이란 곳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받은 도움을 남에게 베푸는 되갚기를 자원봉사 등을 통해 실행하며 사회적 가치의 외연확장을 이루게 된다. 책임 있는 사회성원으로 거듭하는 단계를 거친 후 연구 참여자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능감을 갖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막연하고 두려웠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잘 해낼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독자적

자기위치 굳히기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로서 지니고 있었던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후 결과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급여보다는 제대로 대우받고 배려 받으면서 일할 수 있으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현재에 만족하며, '영속적인 제자리 확보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보통 한국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4)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정보를 코딩하는 마지막 단계로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다른 범주들과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모든 범주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으로, 현존하는 범주들로부터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추상적인 용어나 구절로 표현할 수도 있다(Strauss and Corbin, 199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의 모든 범주와 관련이 있는 중심현상 범주인 '존재의 부활'과 연결되면서 보다 발전적인 설명을 이끌 수 있는 핵심범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기회와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기**'로 보았다.

이후 선정된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관지어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만들어 개방 코딩과 축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하게 된다(유기웅 외, 2012: 42). 본 연구에서 추출된 범주들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국이라는 낯선 곳으로 이주하였고, 한국에서 그들은 새 삶을 살아보고자 직장생활을 희망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냉혹하였고, 이들의 취업욕구는 번번이 좌절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절망감은 높아졌다. 결혼이주여성으로 언어가 미숙하고, 숙련된 기술이 없다는 인적자본의 취약성에 더하여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핸디캡이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소개,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개 등으로 사회적기업과 조우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사회적기업에 입사한 후 전향적으로 바뀌어가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지에서 혼자 외롭고 힘들었던 고립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사회관계망이 확대됨을 경험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에서의 사회화를 거치게 되며 향상된 경제수준은 이들로 하여금 안정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남편, 자녀, 시댁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어 한국으로 결혼이주하면서 잊혔던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은 이들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인사정을 배려해주고 있으며,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일자리에서와 달리 결혼이민자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차별 없이 대우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정체성을 수용하게 만들어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친구나 지인

들, 심지어 모국의 가족에게까지 본인의 직장을 자랑하게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회사 내부교육과 사회적기업의 대표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학습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회적 배려와 도움만을 받았던 존재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자기존재의 외연확장은 새로운 정체성 구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자기발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안분지족하며 주말을 즐기는 보통 한국인의 삶을 통해 존재를 확장시키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5) 유형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유형을 찾아내기 위해 본 연구의 핵심범주와 중재적 조건 및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성하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유형분석을 하여 3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3가지 유형은 편승형, 자기확장형, 동반성장형 이며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 근무경험 유형분석

유형	편승형	자기확장형	동반성장형
인과적 조건	이주민 구직한계(강함) 취약계층의 기회(많음)	이주민 구직한계(강함) 취약계층의 기회(많음)	이주민 구직한계(강함) 취약계층의 기회(많음)
맥락적 조건	고립탈출(일부) 사회관계망 확대(일시적) 안정의 닻 내리기(얕음)	고립탈출(중간) 사회관계망 확대(지속적) 안정의 닻 내리기(깊음)	고립탈출(전부) 사회관계망 확대(지속적) 안정의 닻 내리기(깊음)
중심현상	존재의 부활(일부)	존재의 부활(전부)	존재의 부활(전부)
중재적 조건	일·가정 양립(지속적) 타자성 소멸(약함) 회사정체성 수용(일시적)	일·가정 양립(지속적) 타자성 소멸(강함) 회사정체성 수용(지속적)	일·가정 양립(지속적) 타자성 소멸(강함) 회사정체성 수용(지속적)
작용/ 상호작용 전략	자기발전 동력확보(미약) 사회적가치의 외연확장(좁음) 사회적 독립(일시적)	자기발전 동력확보(있음) 사회적가치의 외연확장(중간) 사회적 독립(일시적)	자기발전 동력확보(있음) 사회적가치의 외연확장(넓음) 사회적 독립(지속적)
결과	보통 한국인의 삶(중간)	보통 한국인의 삶(연속)	보통 한국인의 삶(연속)

(1) 편승형

'편승형'은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인식하고 있고,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은 희박하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나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축적 수준이 낮고 자기개발 의지와 사회적 관계 확대가 미약한 유형이다. 편승형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는 3, 5, 9이다.

(2) 자기확장형

‘자기확장형’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주인의식은 부족하다. 이 유형은 자격증 취득이나 창업 준비를 위한 자기계발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유형이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영어교사, 미용사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기확장형은 사회적기업의 가치 구현에 있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방관자는 아니다.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사회와 회사로부터 받은 만큼은 다시 베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확장형에는 연구 참여자 1, 2, 4, 6, 8이 해당한다.

(3) 동반성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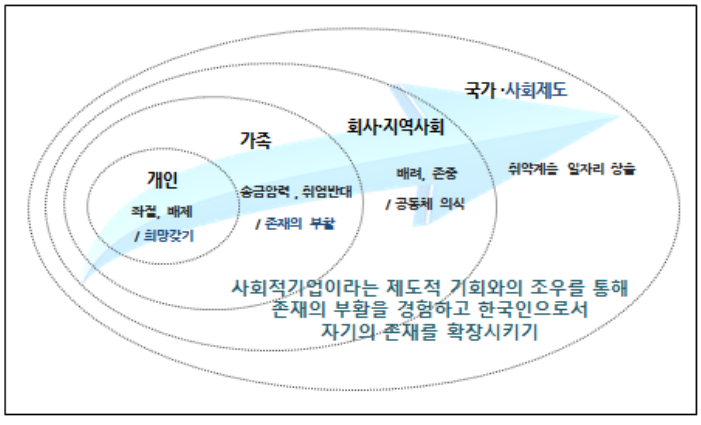
‘동반성장형’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뚜렷하고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자기의 새로운 직업 정체성으로 삼았다. 이들은 애사심과 주인의식이 타 유형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강하다. 동반성장형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멘토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확장형에 비해서 자기 계발을 약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기가 받은 것을 공유하려는 의식이 강해서 주변의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적극 홍보하며 사회적기업의 외연확장에 기여한다. 동반성장형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는 7, 10이다.

6) 상황모형

상황모형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이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따라서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의 형태인 개인으로부터 가장 먼 상황의 형태에 있는 국가 및 사회제도의 작용/상호작용에 형태가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기회와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기회와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기’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차원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차원은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자원이나 가치관, 정체성 등이 상황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수준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거듭되는 취업실패를 경험하며 좌절과 배재 등이 중요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모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한국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풍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현실은 냉혹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자녀가 있고, 우리말이 서툴고,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어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다. 거듭되는 취업 실패로 연구 참여자들은 좌절을 넘어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심리적 유폐상태가 되어 자기 스스로 사회와의 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고립해서 우울과 가정불화 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게 되면서 우울한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지고 남편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면서 그간의 부정적 경험이 희석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림 2>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 근무경험 상황모형

가족차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으로부터의 송금압박을 받았고, 취업에 대한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반대 속에서 아내, 며느리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을 설득하여 사회적기업 취업의 기회를 잡게 되었고, 맞벌이가 되면서 가정 경제에 여유가 생겼으며 친정으로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근무를 시작한 이후 자신을 대하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의 지지와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회사차원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취업에 있어 임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과 가사로 인한 외출이나 조퇴 등의 배려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은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배려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아무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되어 업무 관련 기술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고 숙련 근로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한편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문제나 자녀교육과 관련된 고민과 같은 개인의 문제를 공유하여 공동의 문제로 구성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경험을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중도입국한 자녀의 국적취득과 입양절차를 밟기 위해 장기간 본국에 체류해야 하는 문제 상황 속에서 동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며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내·외국인을 떠나서 같은 길을 간다는 연대의식과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협력체계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사회제도 차원에서 개인들은 그 사회의 문화·전통·가치관·법률·제도 등과 상호작용한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기회와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기'에 미친 영향은 사회적기업의 법제화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 영리적 목적만 달성하는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영리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두 가지를 달성하고 있다.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의 힘을 빌어 취업을 하게 되었고, 배려 받으며 즐겁게 근무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이해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과 본국의 가족에게까지 사회적기업을 자랑하고 홍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존재를 안정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C시의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근무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기업 근무 경험은 13개의 범주와 28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 '존재의 부활'이었다. 인과적 조건은 '취약계층의 기회'였고, 맥락적 조건은 '안정의 닻 내리기', '고립탈출', '사회관계망 확대'였으며, 중재적 조건은 '일·가정 양립', '타자성 소멸', '회사정체성 수용'이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기발전 동력확보', '사회적가치의 외연확장', '사회적 독립'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보통 한국인의 삶'이었다. 이후 과정분석에서는 중심현상이 발현된 이후부터 '비전수립단계', '책임 있는 사회성원으로 거듭나기 단계', '독자적 자기위치 굳히기 단계', '영속적인 제자리 확보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핵심범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기회와의 조우를 통해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장시키기'로 보았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중재적 조건 및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구성하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유형분석을 하여 편승형, 자기확장형, 동반성장형의 3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자녀 돌봄의 문제, 취업 관련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서 우울과 좌절 그리고 가정불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던 중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의 취업은 삶의 안정을 가능케 하여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통과의례라고 할 수도 있는 불안, 우울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능후·선남이, 2010; 배경희·서연숙, 2011; Gilbertson, 1995; Piper, 2003), 본 연구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사회적기업 취업을 통한 경제적 성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문제 해소 및 사회통합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열망은 모국으로부터의 송금압박이나 현재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데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결혼이주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하는 욕구의 발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유용함을 인정받으며 자긍심을 갖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취업을 하게 되면서 본국의 가족들에게도 맘 편히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주변의 모국 친구들이나 이웃들로 부터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찾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역량강화 관점의 선행연구(김효순, 2016; 이경은 외, 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인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회적기업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의 고배를 마시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한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근무하는 곳이 사회적기업인지에 대한 인지는 없었다. 근무를 하면서 사내에서 진행되는 조회나 교육 그리고 동료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본인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 동반성장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기업 근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에서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하는 주체자로의 정체성 전환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에 긍정적으로 통합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이 같은 전환은 낙오자, 주변인이라는 사회적 베일을 벗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 베일을 스스로 벗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소극적 목적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존재 확장의 인큐베이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되어 복지지출 감소의 효과(김복태·이승현, 2015: 9)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윤추구를 하는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른 근로환경과 상대적으로 덜 차별적인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직업만족도를 갖게 된다. 선행연구(박미은 외, 2012: 238)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료들과의 관계도 불편했으나 일터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을 참고 견뎌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전의 취업경험과 달리 한국인 동료들과 동등하게 대우 받고 있으며 동료들과 협력공동체를 구성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인이(201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갖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근무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질 높은 착한 일자리로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관련 기술 없이 사회적기업에 입사하였고, 이후 교육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으며(참여자 6, 7, 10), 매니저로 승진한 사례(참여자 7)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한다(김효순, 2016: 44)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 성장을 위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 근무 후 자기발전 동력을 확보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 자녀 그리고 시댁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존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공수현과 양성은(2014)의 연구에서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동기는 좋은 엄마로서의 역할모델과 인정욕구로 '자랑스러운 엄마되기'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핵심범주로 나타난 '존재의 부활'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경제적 성장은 가족과 개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 본인 자신과 가족의 삶의 시간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본 연구에 국한된 사례이긴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개인사정 배려, 양육배려, 자기개발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주말이 있는 평범한 보통 한국인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기반을 제공해 준 사회적기업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각오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미은 외(2012)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취업을 통해 이루고자 한 열망인 평범한 삶을 살며 뿌리내리기가 실현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보람되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인들과 다르고 평범하지 않으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다른 한국인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자 희망한다. 연구 결과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희망이 실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성장에 기반한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에서는 단순한 취업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고려하여 결혼이주여성 본인과 가족의 삶의 시간표 구성과 지키기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로서의 사회적기업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관련 기관 및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기업의 구인 정보 공유가 요구되며 이를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10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였으나 1명의 연구 참여자만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사님 도움으로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먼 길을 돌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도 모국 친구를 통해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 소개(27.6%), 대중매체·전단지(17.8%),

한국인 친구나 이웃 소개(15.9%)와 같이 사적네트워크나 개인적 정보취득에 의존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공공기관 소개(7%)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따라서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의 복지관과 같은 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별도의 조직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취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결혼이주여성과 사회적기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등이 직업교육 훈련과 더불어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나 단순한 직업소개소 수준의 업무 수행과 더불어 부처별 경쟁이나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김복태·이승현,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영역으로 좁혀 결혼이주여성과 사회적기업의 연결에 두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책임 있는 조직의 활약을 제안한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 홍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좁은 범위의 홍보로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기업 소개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핵심주제인 '존재의 부활'은 남편, 자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구와 주변지인들의 인정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통해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과 자존감 회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을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에게 알리는 작업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과 지지 그리고 존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친구들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취업정보를 부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취업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단순노동을 하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기업은 매우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임금이나 승진상 차별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기술교육을 지원하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거나 시간배려를 해주며, 직장의 동료들이 가족처럼 지지해주는 사회적기업에서의 근무를 희망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많지 않기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에 대한 열망은 그냥 그 자체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편승형 참여자들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축적 수준이 낮고 자기개발 의지와 사

회적 관계 확대가 미약하다. 현재는 이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보호환경 하에 놓여있지만 상황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수준이 낮은 현재의 수준으로는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당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기확장형이나 동반성장형과 달리 자기개발 의지도 없는 상황이므로, 편승형과 같은 유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전환교육이 요구된다. 박신영(2014)은 낮은 학습동기와 학습의욕, 학습준비도로 인해 학습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취업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촉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박신영(2014)의 연구 결과는 편승형 참여자들도 근무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내에서의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학습 동기가 유발되어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교육을 시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외부 평생교육기관들은 이들이 근무시간 외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기업 근무경험을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냈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긍정적인 한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밝혔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사회복지와 정책의 수혜자로서만 이해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정책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데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지역의 한정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질화시켜 결과를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특별히 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질 높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근무하는 모든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신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풍부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정 · 이규용,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2): 49-73.

공수연 · 양성은, 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3-150.

김경아, 2012,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과 지역사회다문화태도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381-409.

김미화 · 이용재, 2015,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173-196.

김복태 · 이승현, 2015,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안나・최승아, 2013, “결혼이주여성 임파워먼트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9(2): 189-229.

김이선・이아름,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수준 진전과 정책적 수요 -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34: 26-32.

김학실, 2015, “돌봄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0(1): 157-186.

김현숙, 2015,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과 민족적 차이”, 『한국사회정책』, 22(2): 163-193.

김효순, 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기업에서의 노동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1: 41-77.

박능후・선남이,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민족연구』, 20(2): 120-144.

박미숙・김영순・홍유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269-302.

박미은・신희정・이미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

박신영, 2014,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과정에서의 학습경험 연구: 근거이론 접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경희・서연숙,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응을 매개로 -”, 『한국사회복지학』, 63(4): 183-202.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양인숙・민무숙・김선혜,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이경은・장덕희・김도희, 2010, “결혼이민여성의 직업활동과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7(2): 113-153.

이동성・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이은희・이은미, 2012,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 66-72.

이재원・홍찬숙 역, 2012, 『장거리사랑』, Beck, U. and Beck-Gernsheim, E. 2011, Fernliebe: Lebensformen im globalen Zeitalter, 서울: 새물결.

이태정・이용수・신현구・김영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

이현주, 2015, “노인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1(7): 197-224.

이현주, 2016, “자활기업에서 성장한 사회적기업의 기업운영 경험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1): 169-194.

이해응, 2014, “결혼이주여성의 본국/한국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6(2): 1-24.

장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조상미・이재희・간기현・송재영, 2013, “사회적 기업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 경향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105-138.

조성호・변수정,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38(2): 59-87.

최영출, 2013,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연구: FSQCA(퍼지집합 질적비교 방법)의 적용”, 『한국비교정부학보』, 17(1): 43-60.

최인이, 2016,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형성-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직업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담론201』, 19(1): 5-43.

통계청, 2015, “2014년 혼인・이혼 통계”, http://www.kosis.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a, “2014 사회적기업 성과분석(기초분석)”,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b, “2014 사회적기업 가이드북”,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황정미・문경희・양혜우・정승희,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Gilbertson, G. A., 1995, “Women’s labor and enclave employment: The case of Dominican and Colombian women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3): 657-670.

Jones, S., 2012, “Working with immigrant clients: Perils and possibilities for social workers”, *Families in Societies*, 93(1): 47-53.

Piper, N., 2003, “Wife of Worker? Worker or Wife? Marriage and Cross-Border Migration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457-469.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 *CA: SAGE.*

Abstract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s Work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Lee, Hyun J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ocial enterprises work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depth interviews with 10marriage immigrant women who were work at social enterprises in 'C' city were performed and analyzed by grounded theory method to configured 113 concepts and classified into 28 sub-categories 13 categories. The Central phenomenon was 'The resurgence of existence'and the Core category was 'Through the encounters of the institutional opportunities of social enterprise, experiencing a resurgence of existence and extending their presence as a Korean'. Also, Work experience of immigrant women working in social enterprises has been classified as a piggyback type, self-expandable type, co-prosperity type and situational model was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 practical and policy proposal for marriage immigrant women's social enterprise employment were suggested.

Key words: marriage immigrant women, social enterprise, work experience, grounded theory, the resurgence of existence

〔논문 접수일 : 16. 06. 22, 심사일 : 16. 07. 19, 게재 확정일 : 16. 08. 18〕